

계란 등급제 및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안)에 대하여

## 판정 수수료 부담비율 높아 형평성 잃은 조치로 받아들여져

**지**난 수년간 우리 채란업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품질향상과 소비자에게 질 좋은 계란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양계업을 천직으로 여기고 도산의 위기속에서도 전직(轉職)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면서 꾸준히 업을 영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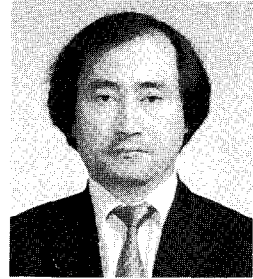
그 동안 여러가지의 여건속에서 생산비도 안되는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그로 인한 누적된 채무로 인해 쉽게 타 업종으로 전환할 수 없는 업종의 특성 때문에 양계업을 지탱해가고 있는 농가들도 많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또한 더욱더 거세지는 소비자들의 품질향상 요구에 대해 양계인 스스로도 신선한 계란,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계란 생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으며, 지금도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해 소명감을 가지고 계란품질 향상에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대구경북 양계농협을 시작으로 계란등급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올 하반기부터는 4군데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제도적 문제점과 계란상품의 특수성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가 양계를 하는 생산자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문제점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등급제 사업 지침은 자율사업이라는 명분



이 덕 선

(현대농장 대표/이천채란분회 총무)

을 들고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 소규모 농가는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즉, 생산자가 계란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된 계란을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는 곳까지 이동하여 판매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그러한 시설 자체가 없는 곳이 많아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둘째, 20만수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농가나 집하장에서만이 등급판정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할 경우 대규모 사육농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격이 되며, 일반농가는 대규모 농가로 납품을 하는 꼴이 되어 소규모 일반농가의 피해가 커질 수 있으며,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는 계란이 등외품으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커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이미 알다시피 국내의 20%정도의 물량을 처리해 축협 계란 집하장이 자체적인 경영부담으로 사업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집하시설을 늘려 등급판정을 실시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며, 등급제 정착도 불투명해 질수 있다.

넷째, 현재 등급판정된 계란은 높은 가격에 형성되고 있지만 유통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할 경우 거래하는 상인 또는 납품업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며, 이 같은 현상은 이미 시범실시 과정에서 수 없이 지적되어지고 있다.

이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접어두기



로 하고 수수료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계란등급판정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문제들이 보완되어 언젠가는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등급판정 수수료와 관련하여 계란의 경우 1개당 1.5원을 징수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아직 등급판정의 정착을 걱정하기에 앞서 수수료 문제를 앞세우는 것은 한 단체의 존립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으며, 타 축종에 비해서도 부담비율이 크게 높아 형평성을 잃은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같은 수수료로 하루에 100만개를 판정한다고 했을 때 모든 계란을 전부 판정할 수 없고, 무작위로 일부 계란만을 판정하여 수수료 150만원을 거두어 간다면 실로 우수한 일임에 틀림없다. 이를 한달로 환산하면 4,500만원(1일 150만원×30일)으로 1년에는 5억4천만원(4,500만원×12)에 달한다. 즉 1년에 100만개를 처리하기 위해 수수료로 5억4천만원을 공

제하는 셈이다.

그 동안 계란이 우수한 영양식품이면서도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홍보를 못해 온 것이 사실인데 그만큼 돈이면 TV, 신문 등에서 광고를 통해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아직 중국보다 1인당 계란을 적게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비증가는 노력하는데 따라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계란등급제가 시범실시되고 2003년부터는 4군데를 더 선정하여 등급제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는 물론 계란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만을 가중시켜 계란의 소비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계란등급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시범업체 만 실시하여 계속되는 문제점을 보완함과 아울러 양계협회와 채란분과위원회 임원, 생산농가 등과 공청회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조정이 필요하며, 확대, 실시 등의 논의는 시기상조요, 적절치 못한 발상이라고 생각되며, 많은 양계인들의 공감대 형성과 등급제 여건의 성숙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보며,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양계인들이 생산비 이하의 경제적 압박과 도산위기 속에도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계란생산에 피나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알아주었으면 한다. **양계**

## 음수소독 살균소독 세척소독 약취 및 해충란 제거

# 카스텍-X

### ● 놀라운 음수소독 효과

- 유효성분이 낮은 농도에서도 항균효과가 우수해 음수소독시 설사병, 만성호흡기질병의 예방은 물론 적절한 사용의 경우 치유효과가 있으며, 사료효율의 증대와 가스억제, 항생제사용 절감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 안전성 공인

- 충북대 동물의학연구소, EPA, FDA, USDA 안전성 등록



본사 문의전화 : (043)532-0700  
홈페이지 : www.hsdrg.co.kr

### ● 강력하고 광범위한 살균력

- 건국대학교 동물자원연구소, 미 ONYX 미생물연구소 등

### ● 강력한 침투력과 세척력

- EPA 5% 혈청테스트 통과, 음수라인 니플 막힘 해결

### ● 경수내구성과 지속효과

- CaCO<sub>3</sub> 750ppm이상 효과적, 안정화된 알킬배치 화학구조

### ● 약취 및 해충의 유충란 제거

- 탈취효과 및 약취원인균 살멸 유충란 살충효과